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16회차, 연합을 위한 호소, 빌립보서 4장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단결을 위한 부름, 빌립보서 4장입니다.

감옥 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따라온 가장 최근의 수업에서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전 로마 식민지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이 편지의 풍부함을 떠올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배경을 많이 언급했지만, 바울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제가 그의 결론을 제시하기 전에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를 기억하도록 도울 수 있어서 기쁠지도 모릅니다 .

왜? 이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히도록 쓰여졌고, 지금까지 저는 그가 읽고 싶어하는 것을 풀어내는 데 몇 시간을 보냈고, 아마 15~20 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 이 편지의 시작 부분에 있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반 강의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다가 선교 사업의 결과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말해, 그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루라고 하신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축소하거나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1장에서 큰 기쁨과 흥분으로 감옥이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의 경험에 대해 낙담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투옥이 실제로 복음의 진로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사실, 사실 그를

실제로 지키고 있던 제국의 경비병들이 복음에 의해 접근되고 있으며, 그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가 왜 감옥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그를 감옥이나 닫힌 문 뒤에 가두어 복음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투옥은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투옥은 복음의 진전을 위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일에 집중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고방식을 개발하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는 태도와 사고방식의 맥락에서 교회에서 연합을 촉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영되거나 예시되는 사고방식을 개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찬송가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곡을 계속해서 주고, 순종과 겸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교회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는 교회가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이러한 순종과 겸손을 지키고 그러한 사고방식과 아마도 확고함을 발전시킨 사람들의 예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는 가까운 동료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에바프로디토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와서 소동을 일으킬 잠재적인 유대교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근거해서, 아시다시피, 이 유대교도들은, 그들이 온다면, 보통은 육신의 것에 대해 자랑하러 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누가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랑할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러한 연합과 집중의 정신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격려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저는 4장 1절을 읽어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3장의 일부로 굳건히 서기를 요청했고, 3장의 끝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지난 강의를 끝낸 방식으로 끝낼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의 시작으로 본다면 이렇게 읽힐 것입니다.

첫 번째 장, 4장, 첫 번째 구절에서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술을 확고히 서라는 강조된 진술 또는 훈계로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나의 기쁨은 완전히 충만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제 그들이 굳건히 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4장 끝까지 더 읽어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권고한 대로 그들이 굳건히 붙잡는다면, 그들은 이러한 일체감의 혼란을 제거하고 그가 이전 장에서 제시한 대로 그리스도의 행로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과 면류관아, 주 안에서 이와 같이 굳건히 서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할 때, 바울은 아마도 과거를 건설하고, 연결하고, 다가올 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심적인 훈계와 함께, 굳건히 서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거짓 교사들의 잠재적 위협에 직면해서, 또는 그 위협과 함께, 굳건히 서십시오.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의 소중한 것과 함께 굳건히 서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연합과 이 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고방식, 순종, 겸손을 개발하는 것에 관해서는 굳건히 서십시오. 그런 다음 그 구절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바울이 교회가 특정 문제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개인적인 도전을 해결하거나 추구하도록 도전하라는 일반적인 훈계로 무엇을 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지난 강의에서 이 일반적인 훈계에서 그가 어떻게 관계, 감사의 마음, 그리고 교회가 그의 기쁨과 면류관으로 불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지를 강조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제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참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지 반복해서 듣는 데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는 또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장소 또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지배 영역에서, 그가 모든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곳에서, 그리고 그의 통치 안에서 교회가 굳건히 서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곳에서입니다.

글쎄요, 그는 교회가 연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미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호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2절과 3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저는 신티게에게 주님 안에서 동의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동역자여, 복음에서 나와 함께 수고한 이 여자를 도우십시오. 클레멘트와 다른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교회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명의 여성이 있는 듯합니다. 놀랍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어떤 종류의 교회 리더십에 관여한 적이 있다면, 이것이 빌립보서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남성 리더들은 싸우고 비방하는 걸 좋아해요. 교회 협의회에 가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성 리더들은 실제로 회의에서 냉정하고 차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은 모임을 이끌고, 때로는 서로의 등 뒤에서 온갖 추악한 말을 합니다. 그것을 교회와 교회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빌립보에서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급할 만한 두 명의 특별한 여성, 유데아와 신티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행복하지 않았고, 그것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호소합니다. 그는 유대와 순두게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호소합니다. 왜 이 여성들이 특별히 지적되는 것일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고 실제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사고방식인 적절한 정신적 태도를 개발하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저는 앞서 바울에게 있어서 p hronesis, 즉 정신적 태도가 행동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들이 사람들과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적절한 사고방식을 개발할 것을 호소하는 데 앞장서 있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있을 때는 개인적인 의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또는 육체 또는 개인적 관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강의 시리즈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교회에 하늘의 사고방식을 개발하여 지금 여기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도록 도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여성들이 실제로 어떤 자기 야망이나 자기 의제에 갇히거나 휘말려 지역 회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바울은 명확하고 확고하게 여러분에게 올바른 사고방식을 개발하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주님이신 영역에서, 두 분 모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들은 모든 의지, 욕망, 야망을 복종시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합당한 정신적 태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개발하세요. 와우.

그리고 마치 이 여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은 이 여인들을 도울 멩에를 메는 동료에게 호소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멩에를 메는 동료가 이 두 여인을 도울 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 중 일부를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 여성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와 순두게. 우리는 신약이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두 여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실제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토론에서 그들이 singled out되어 어느 정도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를 건설하거나 해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교회에서 갈등과 문제를 다루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다툼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추종하는 클릭에서 발생하여 서로를 부추기고 자극하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모든 징후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논란이 되는 몇몇 이슈의 옹호자인 저명한 여성들이라는 매우 좋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 중 한 명을 루디아로 확인했습니다. 빌립보서 서론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주님께 온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루디아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도시에 왔을 때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된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루크의 기록에서 당신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들 중 한 명이 실제로 루디아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매우 추측적인 결론을 어느 시점에서 내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거에서 신뢰를 잃게 된 튀빙겐 학파는 또한 실제로 이것들이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에 대한 우화적 표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가 유대인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특정 상징이라면, 신티케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상징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매우 큰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자는 누구일까요? 답하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오, 제 학생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박사 학위를 가지고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 예,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가 이 여성들에 대해 말하는 것 이상의 추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도자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서 저명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저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요점은, 만약 그들이 교회에서 굳건히 서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된다면, 이 여성들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개발한다면, 그들은 그가 교회에서 원하고 보고 싶어하는 연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료는 누구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자를 도울 것으로 여겨지는 멩에 동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멩에 동료는 누구일까요? 글썄요, 멩에 동료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아는 사람인 듯합니다. 이 특정 멩에 동료는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듯합니다.

어쩌면 가끔 그를,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오, 주니어 폴, 폴의 친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도 거기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를 보고, 폴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우선 그 사람이 알려진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회중에서 충분한 존경을 받아 문제가 있는 이 여자를 도와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에바프로디투스일 수도 있고, 루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알려져 있다고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멩에를 멘 사람이 분명히 디모데 라고 제안했습니다 . 바울은 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글썄요, 그것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바프로디토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라라고 말합니다. 실라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 그가 콜로새서에 편지를 쓸 때 언급한 의사인 루크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생각할 때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있습니다. 초기 교부 중 한 명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실제로 우리가 이 멩에를 멘 사람을 바울의 아내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아내인 이 멩에 친구는 아마도 루디아일 겁니다. 매우 흥미롭네요. 머리를 굽적이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왔고, 바울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연구하고 알아내려고 노력해 왔는데, 모든 징후에 따르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클레멘트가 말했어요, 이 멩에 놈, 멩에 놈, 그러니까, 너무나 연결되어 있고 거의 한 영혼, 한 몸인 사람이 폴의 아내라고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루디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 폴은 영리하네요.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니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초기 성경 해석에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두 명의 주요 교부, 오리게네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세기 후반과 3세기, 4세기 초반에 이들은 신학적 추론에 영향을 미치고,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클레멘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여기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레멘트는 성경의 우화적 해석으로 알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 오리게네스는 실제로 성경의 우화적 해석과 문자 그대로 동일시될 것입니다. 그들이 일부 우화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읽으면 실제로 웃음이 터질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머리를 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그 본문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기독교적 삶을 격려하는 한, 그것은 매혹적인 생각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이 그 접근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그들의 결론은 여전히 기독교적 사고를 형성하고 있으며, 종종 우리는 그들의 해석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살펴보지 않고도 그것을 인용합니다. 클레멘트는 우화적인 사람이었고, 저는 우리가 루디아가 바울의 아내이고,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도울 것으로 여겨지는 멩에를 메는 사람이 실제로는 바울의 아내인 루디아라는 그의 제안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조금 지나친 주장입니다. 안티오크 교부 중 한 명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성경을 실제로 읽고 문맥에 맞게 명확하게 해석하고자 했으며, 당시 최고의 설교자이자 성경 해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멩에를 메는 사람은 이 여성 중 한 명의 남편이나 형제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크리소스툼에게 그것은 제안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무언가입니다. 글썄요, 그걸로 냅두죠. 그것은 제안입니다.

크리소스툼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 확실히 바울의 아내라고 말하는 어떤 주석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크리소스툼의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진다면, 갈등 해결에 잠재적인 편견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그들 중 한 명이고, 그들 중 한 명의 남편이나 형제라면, 다른 사람은 그들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것이라고 믿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그리스어 단어 *su zugos* 는 멍에 동료로 번역되며, 이해되었고, 현대 학계에서는 고유 명사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의 이름이라면, 이 사람은 멍에를 멘 사람이에요. 멍에를 멘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이름이에요.

이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유일한 문제는 그 이름을 보여주는 텍스트, 양피지 또는 단편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 동료가 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멍에 동료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몇 시간, 몇 분, 몇 페이지를 허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폴은 이 여성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제기되는 핵심 요점입니다.

바로 이 틀에서, 바울이 굳건히 서라고 말한 직후에 그는 이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합리성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것이다. 와우.

그래서 , 이 여성에게 평화를 가져오라고 도전한 후, 어느 정도 불안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화를 걸고, 실제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아, 그 여자들은 문제를 해결했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하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아시다시피, 혼란스러워 보이는 일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하지만 그저 기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세요. 와우 .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너무 흥분해서 이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바울은 이 일반적인 훈계를 다시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임없는 기쁨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감옥서신에 대한 이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를 우리와 함께 진행하면서, 이 모든 책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찾아보고,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온유함을 가지세요. 오, 맞아요, 그 여성들은 그렇게 온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온화함은 뉴욕 시의 5 번가에 가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사서 입고, 가장 화려한 시계와 목걸이를 사고, 그저 과시하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글썄요, 여기서의 옷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함은 태도와 행동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온유함, 당신의 사회적 전망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반영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건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사는 방식을 보고 당신 안에 있는 온유한 정신을 깨닫기 시작하게 하십시오. 온유한 태도와 다른 사람들과의 온유한 거래에서 반영됩니다. 바울은 인센티브나 동기를 제공합니다.

가까이 계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온유함을 알리십시오 .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당신은 주님의 임재가 실제인 공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시므로 .

그것이 종말론적이든 아니면 주님의 현존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든,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울의 요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온유함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바울이 기독교를 이런 사적인 일로 제시하는 것을 얼마나 거부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뒤틀리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들의 태도, 행동,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들의 처사는 바람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빛처럼 빛나야 한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불안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 불안은 오늘날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알리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로 여러분의 불안을 극복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영적 훈련. 4절에서 7절까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뻐하십시오.

너희의 이치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6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것입니다. 와우. 불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을 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 범위에 없다고 느낄 때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안에 갇히지 마세요. 불안이라는 단어는, 메리, 이제 걱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전사가 되어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는 상태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파괴될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당신이 이 두려움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걱정에서 갇히게 하는 듯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 그 단어에 주의하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로.

하지만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서,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의 요청을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위로를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자신을 신의 면전에 두십시오. 그리고 일이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느낄 때, 기도로 신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통제를 벗어난다고 그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요청, 간구를 드리세요. 그리고 바울은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은망덕하거나 자격지심이 없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말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 필요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서두르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하셔야 할 어떤 일을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잠깐 멈추고, 잠깐 멈추고, 잠깐 멈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요청, 기도, 간구가 감사와 마음속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이 당신 편이 아니었다면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당신이 요청을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하느님께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XYZ를 해달라고 원했지만 하느님께서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인 만큼 종종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에서,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태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요청을 그 앞에 놓았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느 정도 대담하거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시나요? 당신은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에게 화가 났고, 당신과 싸움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질까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실제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 준 일이나 해 준 일에 대한 깊은 감사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압도당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음에 어떻게 요청할까요? 바울은 아무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평화, 이레네, 샬롬, 그리고 하나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화는 너무나 위대해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실제로, 자연스러운 의미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야 하는 상황에서 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임종 직전에 발견된 사람이 임종 직전에 그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평화의 감각입니다.

인간의 정신을 날려버리는 것을 초월하는 신의 평화. 미국식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정신을 날려버리는 신의 평화.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 결과가 되게 하라. 사실, 그것은 약속이다. 그것이 그 결과가 될 것이다.

당신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왔다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다음 단어를 보세요. 글썬요, 하나님.

그 표현에는 감옥 군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신 포스트. 신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정신 주위에 이런 벽을 쌓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걱정, 불안, 문제.

당신은 침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개인의 마음과 정신을 소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감싸고,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당신 자신이 당신을 소모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가장 힘든 시간 속에서도요. 이 강의에서 앞서 말했듯이, 시편 23편 4절이 떠오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건너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평화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 고대 그리스어로 이해는 당신의 감정의 자리입니다.

삶의 중심. 당신의 마음은 추론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도덕적 선택의 중심입니다.

그는 그것을 지킬 것이다. 그는 그것이 침입당하거나 오염되는 것을 보호할 것이다. 불안의 잠재적 원인이 되는 모든 압력으로. 와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까? 이 군사적 이미지 때문에, 내 마음과 정신을 생각할 때. 보호받는 것. 어려움, 공포, 두려움, 불안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나는 심지어 약간의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갈 동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일치를 유지하고 여러분의 요구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알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것이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와우. 우리와 함께 이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물어봐도 될까요?

이 시대에 바울과 그의 기도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서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볼까요. 실제로 기독교에 대해 그렇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 감사, 성격, 형제 자매와 평화롭게 사는 것, 그리고 연합하는 것이 당신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사로잡혔다고 느낄 때, 당신은 하나님께 와서 그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아이린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글을 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존귀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덕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라면, 우리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삼키게 하세요. 이런 고귀하고 칭찬할 만한 미덕에 대해 생각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삼키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소비하게 하십시오.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나는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3분이나 2분 안에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들을 볼 때,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실제로 주목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탁월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명예로운 미덕, 명예로운 자질, 사회가 보고, 예, 칭찬할 만한 것들이라고 말할 것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저기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과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삼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정신적 활동, 인지적 활동.

기독교가 전부는 아니야. 나는 교회에 갔고, 우리는 박수를 치고 춤을 췄어. 나는 교회를 나왔고, 기분이 좋았어. 나는 기회를 얻었어. 나는 집에 돌아가고, 다음 주에는 다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서 찬양하고 춤추고 좋은 설교도 듣고.

꼭 채우고 나서 다시 올게요. 일주일 후에 다 떨어지면 다시 가서 또 맞을 거예요. 안 돼요.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존귀한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 9절에서 올바른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전한 후에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내용을 살펴보세요. 배우고, 생각하고, 받습니다.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받은 것.

당신이 들은 것. 그리고 당신이 바울에게서 본 것. 그것들을 실천하세요.

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몇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연습하세요.

와. 좋아요. 하지만 이걸 빨리 알아두세요.

덜 얻으세요. 저는 그것을 피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풀은 도덕적 우수성을 요구하면서 공유된 허구적 친족 관계에 호소합니다. 그는 분명합니다.

생각은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은 온갖 더러움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사실,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의 정신과 마음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세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명예로운 것으로 삼키나요?

거기에 여러분이 들은 것, 받은 것, 배운 것, 바울에게서 본 것을 더하여 실천에 옮기십시오. 또 다른 약속입니다. 9절 후반절은 또 다른 약속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해 보세요.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와우. 평화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끝과 같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 평화.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한 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사와 마지막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의 이 감사는 일부 학자들이 지연된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의 편지 쓰기 패턴을 따른다면 이런 감사는 더 일찍 온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끝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 특정 텍스트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나중에 가져온 다른 편지일 겁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런 편지가 돌았다고 말할 만한 증거나 지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편지로 취급합니다. 그 감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 없는 감사로 분류되었습니다. 가려진, 가려진 감사. 왜냐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감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침내 당신이 나에게 동의를 되살렸다는 사실에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나를 염려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궁핍한 처지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낮아지는 법도 알고, 풍부해지는 법도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풍부와 배고픔, 풍요와 궁핍에 맞서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는 방식이 그런가요? 계속해 봅시다. 하지만 내 고민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인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의 시작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났을 때, 주고받는 일에 나와 협력하는 교회가 여러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여러분은 제 필요를 위해 한 번, 또 한 번 도움을 보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용을 증가시키는 열매를 구합니다.

나는 전액을 받았고 그 이상도 받았습시다. 나는 충분히 공급받았습니다. 와! 그것이 당신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방식인가요? 에바프로디토스에게서 당신이 보낸 선물을 받았으니,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이고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기서 온갖 샌드위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점에 유의하세요. 해설자들은 이 특정 시험과 때때로 바울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어차피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이 실제로 교회의 보살핌과 관심에 감사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물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가 사역에서 독립하고 싶다는 요청을 무시하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물을 받았지만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 문화에서 진정한 친구라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때 너무 많은 감사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조용한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 견해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의 초점을 복음의 발전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폴이 감사와 인식의 균형을 맞추려 했으며 그의 사명은 그들의 선물에 의존하거나 동기를 부여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 기울어집니다. 동료인 프랭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션은 기본적으로 빌립보인들이 메신저 에바프로디도를 통해 보낸 금전적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메모는 세 군데에 나타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인이 자신에게 동의한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 그는 그들이 그의 고난을 돕는 것이 좋았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18절에서 그는 재정적 은유와 종교적 은유를 모두 사용하여 그들이 그에게 준 선물의 엄청난 가치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보살핌과 관심에 대해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는 그들의 선물과 협력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선물은 그의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풍요와 빈곤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합니다. 누가 그를 강하게 합니까.

바울은 상황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디모데전서 6:6에 경건과 만족은 큰 이득입니다. 만족 바울은 실제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선물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풍부하게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그의 풍성함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감사는 이런 용어로 단순하고 매우 정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의 사람들이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이 이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빠르게 상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에서 몇 가지 핵심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우정과 파트너십이라는 주제입니다.

고통에 직면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겸손과 순종. 지역 사회에서의 연합.

친족 관계란 하나님 집안의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모델입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입니다.

마무리로, 빌립보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투옥과 장애물이 복음의 발전을 막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격려를 받고 연합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사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사고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고방식을 개발함에 따라 그들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제시된 첫 번째 모델입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 자신.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실제로 강한 일체감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유대와 순티게라는 두 사람을 위해서도 . 그들은 함께 일할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멩에를 메는 동료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나머지 교회에는 그들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불안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와 감옥서신을 위해 우리가 겪어온 모든 연구 모음을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성장하고 배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옥 서신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Dan Darko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통합을 위한 부름, 빌립보서 4입니다.